

##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간의 관계 변화: 1930-2000<sup>1)</sup>

김창민\*

### 1. 머리글

제주사람들에게 일본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일본의 문물을 경험한 제주사람들은 일본을 선진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인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에서 살다가 귀국한 사람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일본의 물질문화 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일본은 또한 피난처로 인식되기도 한다. 4.3으로 인해 경찰에 쫓긴 사람들은 일본을 피난지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또한 제주도에서 경제적 곤란을 당한 사람들은 일본을 피난처 삼아 밀항하기도 하였다.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뿐 아니라 사업 실패나 가게 파탄으로 빚을 지게 된 사람들도 일본으로 피해 재기를 모색하였다.

일본은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성공

---

\*전주대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3-A00044)

한 재일교포들을 통해 제주사람들은 일본을 경제적 성공 신화를 실현할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 신화를 쫓아 많은 사람들이 밀항 또는 불법체류라는 방법으로 일본 길에 올랐다.<sup>1)</sup>

재일교포 사회에서 제주 출신의 비중이 특별히 높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이문웅 1998; 유철인 2000). 타 지역 출신 재일교포들이 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의 조직을 만들어 서로 유대를 강화하며 친목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제주 출신들은 마을 단위로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 만하다(이문웅 1998: 366). 이는 단순히 제주 출신 재일교포의 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을은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기능하는 측면(김창민 2002)이 강하다는 점이 마을 단위 조직의 형성 배경이기도 하다.

제주 사람들이 일본에서 마을 단위의 사회조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을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한다. 제주 출신 교포들은 일본에서 마을 단위로 조직을 형성함으로써 마을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주의 마을에서도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재일교포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재일교포 사회는 마을의 연장선상에 있는 구도를 가지고 있다. 즉, 마을의 경계는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마을이란 공동체는 무수히 많은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의 경계도 상징으로 구성된다(Cohen 1985).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주의 마을과 재일교포 사회는 마을과 관련된 일련의 상징을 공유함으로써 제주의 마을 경계는 일본에까지 확장되어 있다. 이는 제주의 마을이 단지 제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즉,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마을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분석해 볼 때 비로소 제주 마을에 대한

---

1) 제주사람들의 일상에서 일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유철인(2000)을 참고할 것. 그는 제주사람과 재일교포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 이해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재일교포 사회는 현재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애항심에 투철하였던 이주 1세대들은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으로 은퇴한 실정이다. 그들의 뒤를 이은 이주 2세와 3세들은 1세에 비해 출신 마을에 대한 애정도 적고 인식도 상당히 다르다. 즉, 1세대들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출신 마을과 관계를 가졌으나 2세와 3세들은 제주도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제주의 출신 마을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다. 따라서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마을 사이의 관계 유형도 1세대들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와는 상당히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마을에서 보면 재일교포 사회는 여전히 중요하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재일교포의 토지를 위탁받아 농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으로 갈 경우 재일교포의 도움으로 일본 내 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 차원의 지역 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재일교포의 투자와 지원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재일교포 사회와 제주 마을 사이의 관계 유형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제주의 마을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재일교포 사회는 지금도 제주사람들에게 중요한 변수이며 이들과의 비공식적 관계는 마을 내의 의사결정 구조, 권력 관계, 경제적 행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재일교포 사회에 대한 이해는 제주의 마을과 재일교포 사회 사이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일본의 경제 변화와 관련하여 재일교포들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재일교포 사회에 대한 제주 마을사람들의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양자간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사회와 제주마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재일교포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재일교포들의 사회문화

적 실상을 다룬 것이다(이광규 1983; 1987, 이문용 1988; 1989 등). 이 연구들은 문화변동의 관점에서 재일교포를 분석하여 일본문화와 한국문화가 어떻게 접변하였으며, 현재 재일교포들의 문화가 어떻게 일본문화화 되어 가는지를 다루었다. 한편 제주도 마을의 지역 개발에 대한 연구(전경수, 한상복 1996; 1999)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정부가 지역개발에서 한 역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재일교포가 지역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고, 이것이 제주도 지역개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재일교포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의 마을과 그 마을 출신 재일교포 사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 마을과 제주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지향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출신 재일 교포 사회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재일 교포와 제주 마을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 유형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제주도의 연구 대상 마을에 대한 인류학적 참여 관찰과 일본의 교포사회에 대한 단기 방문조사를 하였다. 연구 대상 마을은 연구자의 지속적인 조사마을이며 이 연구를 위하여 2002년 8월과 2003년 1월 동안 약 4주의 현지연구를 하였으며, 이 조사를 통하여 마을개발사업의 과정과 그에 대한 재일교포의 역할, 재일교포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 마을 출신 교포들은 오사카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 2월에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2주간의 단기방문조사를 하였다. 짧은 조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재일교포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마을 사람 한 명과 함께 조사를 하였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의 서기로서 마을개발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일본에 밀항하여 노동자로 17년간 생활하다가 1989년에 귀국한 사람으로서 마을과 재일교포

양자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이었다. 오사카에서는 면접조사를 주로 하였으며 재일교포 조직의 회의록과 금전출납부 등과 같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보자의 진술을 교차 검증하였다.

## 2. 재일 사회의 형성: 친흥회

이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속한 농촌마을인 달밭마을과 그 마을 출신 교포들의 재일 사회이다. 달밭마을사람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하였다.<sup>2)</sup> 1914년 1차세계대전과 함께 일본에는 군수산업이 육성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고 1920년대 들어서면서 산미증산 계획에 착수하여 한반도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농민은 농업의 기반을 잃어 새로운 대안모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서 일본은 일본으로의 노동력 유입을 쉽게 하기 위하여 1922년에 도항조절제도를 폐지하였다(조맹수 1995: 13 참고). 달밭마을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정세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이 당시 일본으로 간 달밭마을 사람들은 마을에서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던 사람들이었다. 특히 고부이씨, 제주 고씨, 경주 김씨 등 달밭마을의 유력 성씨 집안의 자녀로서 장남이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일본행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제주도에서는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일본행을 선택하였다. 즉, 당시 제주도는 생계경제 상황인 반면 일본은 자

---

2) 박경식(1986)은 도일시기를 대략 4기로 구분한다. 제1기는 1910-1919년까지의 유치기, 제2기는 1920-1930년까지의 조절기, 제3기는 1931-1938년까지의 억제기, 제4기는 1939-1945년까지의 강제연행기이다. 달밭마을의 경우 조절기와 강제연행기에 도일이 많이 일어났다.

본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으면 농사나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일본으로 가서 노력하면 돈을 벌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고 인식되었고 이 점이 일본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당시 제주도와 일본의 오사카 사이에는 '기미가요마루(君代丸)' 이란 정기노선이 개설되어 있었다.<sup>3)</sup> 이 노선에 의해 달밭마을 사람들도 주로 오사카로 건너가 노동 일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일용 노동과 공장 노동을 하였으며 일본인 감독 아래에서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일본에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하여 임금이 높다면 위험하거나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노동시간을 늘이는 것도 피하지 않았다.<sup>4)</sup>

노동으로 돈을 번 사람들 중에는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제주사람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시장이 형성되면서 양곡판매점을 열거나 잡화상을 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공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유리 관련 가내 수공업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여자들은 봉재나 옷 만드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본을 축적하는 속도가 빨라졌으며, 이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에도 제주도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 남아 재일교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에 이주한 달밭마을 사람들이 친목회를 조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달밭마을에 토지를 매입하여 기부한 것이었다. 달밭마을은 풍수

3) 이 노선은 1922년에 개설되어 제주도의 노동력을 일본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 노선에 의한 제주민의 집단 이주로 오사카에는 제주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이쿠노와 같은 재일제주사회의 기초가 되었다.

4) 일제시대 재일 조선인의 생활상에 대해서는 강재언 & 김동훈(2000), 강권수 & 신용훈(1993) 등을 참고할 것.

상 달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즉, 마을이 자리한 지형은 둥근 구릉의 형태를 하고 있어서 마을도 그 구릉을 따라 둥글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마을의 앞 부분인 소위 '아웨낭목'은 작은 개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곳으로서 구릉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져 있어서 마을의 정기가 새고 있다고 풍수적으로 설명되고 있었다. 마을에서는 아웨낭목 일대에 소나무를 심어 지형을 보완하고 싶어하였으나 토지를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 한편 일본에 건너간 달밭마을 사람들은 일을 쉬는 날이면 모여서 고향 소식을 서로 듣기도 하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던 중 마을을 위해 뜻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금씩 돈을 모아 아웨낭목 일대를 매입하여 마을에 기증하기로 결정하였다. 달밭마을 출신 24명은 1930년에 1,184평의 땅을 매입하여 마을에 기증하였다.<sup>5)</sup>

아웨낭목 밭을 매입하여 기부한 일을 계기로 오사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에 건너온 달밭마을 사람들은 친흥회(親興會)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당시 일본에 온 사람들은 가족 없이 혼자 오는 경우가 보편적이었다. 주말이나 휴일이면 이들은 마을사람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친목도 도모할 필요를 느껴 친흥회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친흥회로 모이면 대부분 고향과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고향을 위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 일본에 온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위해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것은 일본에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고향을 위한 기부는 고향에 있는 마을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적인 일본생활을 알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향을 위한 기부

5)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입 대금을 모금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증자 24명의 이름은 동기부 동본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24명이 1920년대에 일본에 건너간 달밭마을 사람들로서 달밭마을에 살고 있던 성씨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장남은 거의 없고 대부분 차남 이하였다.

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

친흥회가 중심이 되어 고향에 기부한 두 번째 일은 마을 회관의 부지를 매입하여 기증한 것이다. 마을회관 부지는 대지 약 200평이었으며 친흥회에서 모금을 하여 이 땅을 구입하고 기증하였다. 그리고 1941년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도 친흥회에서 경제적 기부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친흥회는 췌단밭도 기부하였다. 췌단밭은 과거 포제를 지내던 장소로서 포제가 중단된 이후 친흥회는 이 땅을 매입하여 마을에 기증하였다.

1940년대 이후 일본은 2차세계대전을 계기로 강제징용을 실시하였다. 달밭마을 사람들 중에도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북해도 등지에서 노역을 하였으며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친흥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해방과 함께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달밭마을로 돌아오게 되었다.

친흥회는 달밭마을과 정서적인 친밀감을 긴밀히 유지하고 있었다. 친흥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왔으며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즉, 이들에게 달밭마을은 지역정체성의 기반이었으며 스스로를 달밭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이 마을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토지를 집중적으로 기부한 것도 마을에 돌아갈 경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의 기를 보존하기 위한 아웨낭밭이나 마을회관의 부지, 췌단밭 등은 이러한 상징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다. 즉, 마을에 경제적 기부를 하는 것은 마을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노동을 할지라도 마을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실제 이 당시 친흥회에 가입하여 기부를 하였다가 해방 이후 마을에 돌아온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이 때의 기부를 과시하며 지위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친흥회가 마을에 많은 경제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일사회와 달밭마을 사이의 관계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이었다. 친흥회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애향심이었으며, 달밭마을 사람들도 일본에 거주하는 마을 사람을 같은 마을사람으로 인식하였다. 친흥회와 그 회원은 마을의 연장선상으로 인식되었을 뿐 그것이 마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조직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즉, 친흥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잠시 일본에 가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었으며 마을로 돌아오는 경우도 빈번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재일사회 조직인 재일본달밭친목회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이었다.

해방과 함께 친흥회는 많이 위축되었다. 2차세계대전이 본격화되자 전쟁의 위협을 피해 제주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 해방이 되자 일본에서 개인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에 남았으나 그 때까지 노동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과 함께 달밭마을로 돌아왔다. 특히 마을에 어느 정도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은 예외없이 마을로 돌아왔다. 패전한 일본에서 노동을 하여 사는 것은 제주도에서 농사를 하면서 사는 것보다 별반 나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달밭마을로 역이주 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친흥회의 회원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친흥회는 더 이상 사회집단으로 기능할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 3. 재일 사회의 성장과 달밭마을과의 관계: 재일본달밭친목회

친흥회는 해방과 함께 회원의 감소로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남은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본의 경제가 불황이어서 모임을 활성화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4.3과 한국 전쟁은 교포사회에 변화를 준 계기가 되었다. 4.3과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으로 도피하는 마을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제주도의 경제상황이 극도로 파폐해진 반면 일본은 전쟁 특수로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달밭마을의 젊은이들 중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마을 출신 교포들이 이미 거점을 마련하고 있던 오사카로 들어왔다. 20대의 청년들은 오사카에서 노동을 하면서 제일교포 사회에 편입되었고 10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친척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복송은 친흥회를 와해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 해방과 함께 남북한이 분단되었고 제일교포 사회도 이념을 경계로 양분되었다. 조총련은 1958년 복송을 제의하였고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대대적인 복송이 진행되었다. 주로 4.3과 연관되어 일본으로 온 사람들이 복송선을 탔으며 이 와중에서 친흥회의 회장과 자금을 맡아 있던 총무가 친흥회에 관한 일체의 일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송선을 타게되어 친흥회는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에 거주하던 달밭마을사람들이 다시 모임을 결성한 것은 복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1966년의 일이다. 모임의 결성에는 달밭마을의 전기가설공사가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제주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마을별로 전기가설공사를 하였다. 달밭마을을 방문하게 된 조문주씨(달밭마을 출신으로 동경에 거주하던 교포)는 인근 마을에서 전기가설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달밭마을도 전기가설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였다. 마을에서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제일교포와 마을이 협력하여 전기를 가설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즉각 '전기가설기성회'를 조직하고 당시 마을의 유지와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로 기성회 임원을 선임하였고, 기성회 임원의 면면을 보고 교포

들도 '재일본달밭마을 전기가설 후원회'를 결성하고 당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교포들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재정 후원을 담당하였다. 비록 교포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지만 마을에서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가구당 2,000원씩 재정부담을 하여 총 253,000원을 모금하였다. 교포들은 재정적 능력과 연배에 따라 50,000엔에서 300,000엔까지 기부하여 총 1,150,000엔을 후원하였다. 당시 전기가설은 제주도내에서 마을 단위로는 매우 빠른 것이었고 달밭마을사람들과 교포들은 전기를 가설한 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달밭마을에서는 재일교포 공덕비를 마을 입구에 세워 재일교포의 공로를 치하하였다.<sup>6)</sup>

달밭마을의 교포들은 전기가설 공사를 통해 고무되었다. 비록 전기가설 공사에는 연락이 되는 10명만 회사에 참가하였지만 앞으로 마을의 개발사업을 위해 교포들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모임을 만들어 교포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전기가설공사를 할 때 마을에 사업을

- 
- 6) 전기가설 공사는 지금도 재일교포와 마을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 행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억되고 있다. 재일교포의 공덕을 기린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祖國을 떠나 三十有數閱春  
 生存競爭 甚한 異國의 하늘 아래  
 風箱雪雨 喜悲雙谷 속에  
 大器晚成 하신 同胞諸賢  
 寤寐不忘으로 祖國을 사랑하며  
 鄉土開發에 눈부신 瑞光을 비취주신  
 그 無私高邁 하고 드높은 愛鄉精神이  
 이 고장 四周八方에  
 깃들여 있다.

제안하였으며 후원회의 부회장을 맡았던 조문주씨는 오사카에 출장을 오는 길에 오사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고영주씨를 만나 친목회의 재건을 제안하였다. 고영주씨는 달밭 출신자들 중에서는 가장 연장자였을 뿐 아니라 오사카에서 사업도 크게 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가진 사람으로서 후원회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었다.<sup>7)</sup> 조문주씨는 3만엔을 내어놓으며 마을사람들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모임이 있을 때면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고영주씨는 다음해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 야유회를 개최하면서 '재일본달밭친목회'를 조직하였다. 친목회의 취지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同鄉의 有志들이 異國에서 相互間의 親睦과 愛鄉心을 높이며 相互救濟와 扶助를 圖謀하고 繼續 密接한 連携性을 維持하여 나가며 恒常 鄉民들과도 密接한 連携를 保持하고 鄉里의 開發에 寄與한다.  
우리들은 日本에서 出生한 關係上 아직도 우리 故鄉을 모르는 靑少年들이 많이 있으며 이 後代들을 民族的 意識과 愛鄉心을 育成시키는데 一層 努力하여 나간다.

이 취지문을 통해서 보면 재일본달밭친목회의 목적은 세 가지임을 알 수 있다. 즉, 회원간 상호부조, 고향의 발전에 기여, 후대들에게 애향심 고취가 그것이다. 이는 고향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고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재일본달밭친목회는 경제개발계획에 맞추어 급변하고 있던 달밭마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되었던 것이다.

재일본달밭친목회의 창립 회원은 모두 16명이었다. 이중 2명만 동경 거주자였으며 나머지 14인은 오사카와 인근 지역 거주자였다. 초

7) 그는 달밭마을 교포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그는 달밭마을 출신 교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마을을 후원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일본으로 오는 마을사람들의 후견자 역할도 가장 적극적으로 하였다.

대 임원으로 회장에 고영주씨, 부회장겸 총무에 박동주씨, 재정감사에 이성주씨, 서기에 조태주씨 등이 선임되었다. 창립과 함께 기금을 모금하였으며 회장인 고영주씨가 5만엔, 조태주와 박동주씨가 각각 3만엔, 그리고 나머지 회원은 경제적 능력과 연배에 따라 3천엔에서 2만엔까지 출연하였다.

친목회의 주요 활동은 신년회와 야유회였다. 신년회는 고영주 회장 집에서 모였으며 친목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이 때 처리하였다. 야유회는 추석 무렵에 오사카 인근의 휴양지나 온천에서 하였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 그리고 회원간 부조를 위하여 결혼이나 장례, 대소상에 5,000엔-1만엔 정도씩 친목회의 기금에서 부조를 하였다.<sup>8)</sup>

1970년대 들어서면서 달밭마을에도 밀감농사가 보급되자 재일교포들은 마을의 토지에 투자를 하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밀감원 관리를 위하여 마을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젊어서 일본에 건너가 그 곳에서 정착하고 있는 경우 고향에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재일교포들은 마을의 친구, 친척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마을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마을개발사업에도 적극성을 가지게 되었다. 전기가설공사의 성공 이후 재일교포들은 마을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하여 마을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두고 마을과 갈등하기도 하였다. 1972년의 마을창고 건립 사업은 이런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1970년대 초반은 달밭마을에서 밀감농사가 본격화 되기 직전으로서 맥주맥과 절간 고구마 생산이 정점을 이루던 시기였다. 이런 농산

8) 1970년대 이후 밀항이 증가한 이후에는 검거되어 고향으로 송환되는 사람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이 위로금이 부조금 중 가장 많은 돈이 지급된 경우였다.

물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마을에서는 창고건립이 숙원사업이었다. 마을 유지들이 농림수산부를 찾아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마을 규모가 적어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재일교포들은 창고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마을에서는 창고의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사업비는 마을 주민과 교포가 분담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모금하여 616,000원을 부담하였다.<sup>9)</sup> 교포들은 공사비로 1,660,000원을 회사하였고,<sup>10)</sup> 별도로 부지대금 655,000원을 마을 출신 재일교포인 강원식씨가 부담하였다.

재정적인 것이 해결되고 나자 창고 부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마을에서는 창고에 차량이 진입하기 쉽도록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대로변에 창고를 짓기 위하여 지주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재일본달밭친목회'를 대표하여 강석회씨가 방문하였다. 그는 교포와 상의 없이 부지를 선정한 것에 불만을 표한 후 부지를 다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교포들은 창고가 마을 안에 건립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즉, 당시 달밭마을은 동서로 나뉘어 있어서 한 마을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마을의 가운데에 창고부지를 정하고 창고를 건립하여야 마을 발전이 순조롭게 된다는 논리였다. 또 부지 대금을 회사한 강원식씨도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강석회씨의 방문을 계기로 창고 건

---

9) 마을에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주민을 5등급으로 나누고 각각 10,000원, 8,000원, 6,000원, 4,000원, 2,000원씩 모금하였다. 이 기준으로 132가구의 주민들을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은 돈을 낸 1등급이 9가구, 2등급이 10가구, 3등급이 33가구, 4등급이 44가구, 5등급이 36가구였다. 경제적으로 주민을 분류하는 것은 사정위원들이 하였다. 사정위원은 노년에서 3명, 장년에서 3명, 청년에서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이 주민들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10) 이 때 기부에 참가한 교포는 10명이었으며, 고영주씨와 박동주씨가 각각 500,000원씩 기부하였다.

립 기성회 임원들이 전원 사퇴하였고 새롭게 구성된 임원들이 교포의 뜻에 따라 마을 한가운데에 1,800평 부지를 확보하고 61평의 창고를 건립하게 되었다.<sup>11)</sup>

이 사건으로 마을 개발 사업의 주도권은 상당 부분 재일교포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교포들은 마을 개발 사업에서 마을사람에 비해 역할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마을 개발 사업을 할 때 교포들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게 되었으며, 교포들도 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진행되던 새마을운동의 영향으로 달밭마을의 이장들과 공무원들은 마을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일교포에게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교포가 마을을 방문할 경우 극진히 대접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1970년대는 밀항의 시기였다.<sup>12)</sup> 1970년대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차이가 매우 컸던 시기였으며 마을에서 마땅한 일거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위험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밀항을 시도하였다. 달밭마을에서는 1973년부터 밀항을 시작하였다. 창고 건립의 과정에서 재일교포의 경제적 위력을 본 젊은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일본에 일하러 가고자 하였고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일본도 밀항을 엄격히 단속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교포들은 마을에서 오는 젊은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하였다. 재일교포는 밀항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하기도 하였으며, 직접 데리고 일을 하기도 하였다. 밀항자들

11) 현재 이 부지는 마을의 가장 중심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부지 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마을의 모든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그 이후 100평의 창고가 이 부지 위에 추가로 건립되었다.

12) 밀항에 관해서는 유철인(1988)을 참고할 것.

은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자연스럽게 교포들의 집으로 모이게 되었다. 이 당시 달밭마을 사람들 중에는 현직 이장이 밀항하기도 하고 한꺼번에 4명이 밀항하기도 하였으며, 이들의 밀항을 도와주던 부산의 정금식씨(마을 출신으로 운수업을 하고 있었음) 집에는 늘 달밭사람들이 기식하고 있을 정도로 밀항이 일반화되어 있었다.<sup>13)</sup>

밀항자의 급증으로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재일교포 사회는 활기를 띠게 되었다. 재일본달밭마을친목회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는 밀항자로 회원 수가 증가하였고 모임도 활성화 되었다. 매년 신년회 마다 신입회원이 4-6명씩 가입하였으며, 야유회나 모임에도 30여명씩 참가하였다. 기존의 교포들은 밀항해 오는 마을 젊은이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청년회를 조직하고 교포2세도 친목회에 가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1978년 친목회의 회의록에는 '청년(2세) 회원 가입'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며 준비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선임하였다.

재일교포의 수가 증가하면서 '재일달밭마을부인회'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부인회에는 달밭마을 출신 여자들과 달밭마을 남자의 부인들이 가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일년에 2회 모임을 갖고 1년에 2,000엔씩 회비를 납부하여 적금 방식으로 돈을 모았다. 물론 회원의 경조사에는 5,000엔 정도씩 부조를 하여 상호 부조를 하기도 하고 야유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1978년에 추진된 마을진입로 공사는 재일본달밭친목회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추진된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폭4m, 길이 2.5km의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하는 사업이었다. 총공사비가 24,000,000원 정도였지만 정부 보조금은 4,900,000원 밖에 받을 수 없었고 나머지 필

---

13) 밀항자들은 일본의 노동력 수급 상황에 따라 장기 체류할 수도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대부분 밀항자 신분이 발각되어 오무라(수용소) 신세를 지다가 추방되었다.



요한 공사비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은 3,300,000원 정도였고 나머지 금액은 재일본달발친목회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친목회에서는 자발적으로 회사하기로 하였다. 이 때에는 기존의 교포들이 회사의 모범을 보였지만 밀항자들도 적극 회사에 참여하여 총 29명이 회사하였다. 밀항자들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일본에서 일하여 번 돈으로 마을을 위해 회사하면서 자신들도 교포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재일교포 사회의 전성기와 달발마을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된 마을개발 사업 기간은 시기적으로 중첩되어 있었다. 마을개발사업은 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컸다. 따라서 마을에서는 재정적인 후원자로서 재일교포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마을이 재일교포 사회에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재일교포는 마을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교포들은 중요한 마을개발사업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행정조직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sup>14)</sup>

이 시기에 재일본달발친목회는 상당한 정도로 조직화 되어있었다. 회장과 부회장, 총무, 서기 등의 임원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교포들이 장기간 맡았으며, 마을과 마을개발 사업을 두고 협의할 때에도 공식적인 대표자를 마을에 보내어 협의를 하였다. 마을 개발 사업과 관련한 경제적 후원은 항상 친목회의 이름으로 하였고, 사업이 끝날 때마다 재일교포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이 마을 곳곳에 세워졌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에는 재일교포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을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조직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다.

14) 마을진입로 공사 당시 정부 지원금을 4,900,000원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재일교포인 고영주씨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당시 추진위원장이었던 이성욱씨는 군수를 만나 지원을 요청 할 때 도교육감과 동행하였다. 도교육감은 고영주씨의 도움으로 도교육감이 되었기 때문에 달발마을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도교육감의 부탁으로 군수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재일교포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교포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염두에 두고 토지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교포들은 친척이나 친구 중 한 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재일교포와 개인적인 관계로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은 교포의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재일교포들은 마을의 공식적인 사업에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마을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사적인 일에서는 주민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 4. 재일사회의 위축: 재일1세의 퇴장과 제주 경제의 성장

재일본달밭친목회는 198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세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까지 매년 2회씩 가지던 정기 모임은 이후 뜸해지면서 1984년과 1988년에 각기 한번씩 모임을 가진 후 중단되었다. 회비를 내는 사람의 수도 감소하여 1980년대에는 10명 정도만 회비를 납부하여 재일본달밭친목회는 사실상 기능이 정지되었다.

달밭마을 출신 재일 사회의 위축은 크게 3가지 원인 때문이었다. 우선 1980년대부터 밀항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강제송환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할 경우 외국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등록의 기준은 일본의 노동력 수급정책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등록을 내기 위하여 자진신고 하였다가 강제송환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1978년 마을집입로 포장 공사 당시 기부에 참여한 29명의 친목회원 중 1980년대에 강제송환 당한 사람이 14명일 정도로 송환이 강화되었다. 한편 1980년대는 제주경제의 호황기였다. 제주도에서 본격적으로 상업농이 전개되고<sup>15)</sup> 땅값이 상승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밀항자들은 달밭마을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밀항자들이 제주도로

돌아가면서 재일본달밭친목회에는 다시 일본에서 기반을 잡고 있던 재일1세만 남게 되었고 활력을 급속히 잃어가게 되었다.

두 번째 원인은 친목회에 교포2세들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밀항자들의 귀환과도 연관되어 있다. 교포2세는 밀항자들과 동년배로서 교우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밀항자들이 귀환을 한 이후에 2세들은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였다. 특히 부모세대들이 중심 역할을 하는 친목회에서 2세들은 활동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느꼈다. 한편 2세들은 일본에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sup>15)</sup>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점도 2세의 친목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교포1세들은 교포2세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원진을 젊은층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청년회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기도 하였지만 2세들을 친목회에 합류시키지 못하였다.

세 번째 이유는 제주 경제의 활성화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달밭마을에는 하우스 농업으로 고소득을 올리게 되었다. 파인애플, 꽃, 바나나 등을 재배하면서 기존의 밀감농사와 더불어 달밭마을은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따라서 1980년대 이후 달밭마을의 마을 개발사업은 주민들 자력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더 이상 교포들의 재정적 후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달밭마을의 경제적 능력이 커지면서 재일본달밭친목회의 활동 목적이 흐려지게 되었다. 점차 달밭마을 출신 교포들은 친목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었으며 마을과의 관계도 약해지게 되었다.

1988년에 달밭마을에서 마을공동묘지를 조성한 사업과 1989년 마

15) 특히 하우스 농업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1,000평 정도의 하우스로 상업농이 충분히 가능해지면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상업농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 저축한 돈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초기 투자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제주에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되었다.

16) 재일교포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는 권숙인(2000)을 참고할 것.

을 문화관 건립사업은 마을진입로 공사 이후 10년만에 추진한 개발사업으로서 재일교포 사회의 위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마을 공동묘지 조성 사업은 달밭마을의 기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새롭게 조성한 사업으로서 3,200만원의 사업비를 조성하여 2,400만원으로 완성하였다.<sup>17)</sup> 이 사업의 필요성은 마을 내에서 제기되었으며 찬조를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하였지만 주민들이 모금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성욱씨는 재일교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본에 가서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회사를 부탁하였고, 재일교포 1세대 5명(고영주, 박동주, 조태주, 조태수, 강석희)이 각 100만원씩 회사하여 총 500만원을 기부하였다.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매우 적은 부분을 교포들이 담당한 것이며, 재일본달밭친목회의 이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회사를 한 것이었다.

이 때 남은 사업비 800만원은 이듬해 착공된 마을문화회관의 종자돈이 되었다. 달밭마을의 마을회관은 친흥회에서 일제시대에 기부한 대지에 건축되어 있었으나 너무 오래되어 건물이 낡았을 뿐 아니라 공간도 협소하여 새로운 마을회관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요구가 컸다. 공동묘지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이성욱씨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동주씨를 만나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침 제주도에 투자를 모색하던 박성주씨는 기존의 마을회관 부지와 마을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이 매입하고 부족한 돈은 고영주씨에게 기부를 요청하면 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은 곧 마을회의에 상정되어 채택되고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마을의 기대와는 달리 고영주씨는 박동주씨가 꾸민 일

---

17) 이 사업은 달밭마을의 마을개발 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비가 남은 사업이었다. 이는 달밭마을의 경제가 그만큼 좋았기 때문이며 이제 외부의 도움 없이 마을의 힘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마을사람들은 마을 개발사업에 교포의 도움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에 자신이 관여할 수 없다고 기부를 거부하여 결국 기존의 마을회관 부지외에 젓단밭까지 박동주씨에게 매각하고 시청의 보조금 일부와 마을의 기금, 그리고 교포의 일부 회사<sup>18)</sup>로 연면적 90평의 2층 슬라브조 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재일본달밭친목회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비록 부인회의 기금이 이 사업에 기부되기는 하였지만 이 기부금은 이미 마을에 기부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다만 교포인 박동주씨가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그는 이 사업을 통해 교향에 토지를 공식적으로 매입할 수 있었다. 그의 행동에 대해 교포들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였으며, 마을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그가 개인적인 잇속을 차리기 위해 마을을 이용하였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일교포의 중심 인물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고영주씨는 박동주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마을과 자신을 이용하였다고 생각하여 재일교포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업 이후 재일교포는 더 이상 마을 개발사업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일본 달밭친목회도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다.

1990년대는 교포 1세들이 은퇴하는 시기였다. 재일본달밭친목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던 고영주씨가 노환으로 사망하게 되고 나머지 교포 1세들도 나이가 많아 일선에서 은퇴하게 되었다. 언젠가 달밭마을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던 교포들도 일본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이가 든 후 몇일씩 제주도를 방문하면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음식이나 생활도 부자유스럽게 느껴지고 있다. 더구나 교포 2세와 3세들은 자신들을 일본인으로

18) 재일달밭부인회에서 모은 기금도 이 때 달밭마을에 회사되었다. 부인회 역시 1980년대에 유명무실해졌지만 기금은 고영주씨의 부인이 관리하고 있었다. 이 기금 500만원이 이 때 마을에 사업비로 회사되면서 부인회도 완전히 해산되었다.

정체화하는 경향이 강하여 달밭마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재일 1세대들은 자신들 다음 세대에는 마을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달밭마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어지면서 교포들은 제주도에 투자 하였던 토지나 자신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를 관리해 주면서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어왔던 마을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있다. 이미 교포 1세대들의 경우 고향에 있던 부모들도 돌아가신 상태여서 더 이상 달밭마을과의 관계를 유지할 고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마을의 입장에서 교포는 더 이상 마을개발사업의 경제적 후원자가 아니며, 이미 일본사람이 된 사람으로 인식한다. 제주도를 방문할 경우에도 고향마을에 오지 않고 호텔 생활을 하며, 자신들과 식사 한 끼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향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있다.

## 5. 맺음말

달밭마을 사람들은 1920년대부터 일본으로 가기 시작하여 일본에서 친목조직을 결성하고 마을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친흥회와 달밭마을은 정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일본에서 노동을 통해 어렵게 돈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회사를 하여 마을 재산을 늘여나가도록 일조하였다. 마을에서도 이들을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간 마을사람이라고 인식하여 언젠가는 마을에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친흥회는 달밭마을의 연장이었으며 친흥회 회원들도 자신들을 달밭사람이라고 정체화 하였다.

그러나 해방과 분단은 재일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해방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달밭사람들이 대거 마을로 돌아왔으며, 분단으로 인

한 복송의 결과로 재일 사회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밀항으로 일본에 다시 달발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제적 호황으로 밀항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일본의 달발사람들은 '재일본달발친목회'를 결성하였다. 때마침 한국에서 경제개발계획과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달발친목회는 경제적 후원자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목회는 마을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게 되어 개발사업에서 주도적 위치에 있게 되었다. 재일본달발친목회는 이전의 친흥회와는 달리 하나의 사회조직으로서 잘 조직되어 있었으며 마을과의 관계도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 가지게 되었다. 마을 개발 사업에 대한 이들의 공적은 마을에 세워진 비석으로 칭송되었고, 재일교포들은 개인적으로 토지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노동정책으로 밀항자들이 강제 소환되기 시작하고 교포 1세대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재일 사회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제주도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마을개발사업을 정부의 보조와 달발마을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재일교포의 역할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관계 변화로 재일교포사회와 달발마을 사이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교포사회와 달발마을 사이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해왔다. 교포와 마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일제시대에는 양자 사이의 관계가 가장 정서적이고 우호적이었다. 해방 이후 교포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마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는 양자가 후견자-피보호자(Patron-Client)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마을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면서 지금은 양자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며, 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교포 개인과 마을사람 개인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다. 양자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교포들은 마을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를 단절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계 유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일교포사회는 마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도 일본에서 불법체류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교포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정착하려고 한다. 교포1세대들은 여전히 마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마을 출신 교포들 사이에는 매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는 교포들의 공적을 기린 비석과 교포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기반시설이 즐비하여 교포의 흔적이 남아 있다.

교포사회와 마을 사이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제주 문화에서 마을의 위상을 나타낸다. 제주사람들은 마을을 지역 정체감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관계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일본에서 유독 제주사람들만 마을 단위로 친목회를 만드는 것은 제주 출신 교포의 수가 많은 탓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마을이 제주사람들의 사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일교포사회는 제주도 마을의 연장이며 제주사회의 마을 경계는 제주도라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 일본에까지 확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Cohen A. P.

1985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Tavistock Publications

강권수, 신용훈

1993 *오사카의 숨비소리*, 다문

강재언, 김동훈

2000 *재일 한국·조선인 : 역사와 전망*, 하우봉, 홍성덕 역, 소화

권숙인

2000 "재일 한인의 아이덴티티: '제3의 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의 이론과 실천』, 소화

김창민

2002 "이장선출과 취임식에 나타난 제주마을의 정치과정", 『한국문화인류학』 35집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서울

유철인

1998 "재일 사회의 밀항자",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2000 "제주사람들의 생활세계에서의 '일본'", 『한국문화인류학』 33집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이광규

1983 『재일한국인 :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일조각

1987 『재외한인의 인류학적 연구』, 집문당

이문용

- 1988 “재일 제주인의 의례생활과 사회조직”, 『제주도연구』 제5집, 제주도연구회
- 1989 “재일 제주인 사회에서의 무속 : 오사카 이꾸노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제6집, 제주도연구회
- 1998 “재일 제주인 사회에 있어서의 지연과 혈연”,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 집문당

전경수, 한상복

- 1996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13집, 제주학회
- 1999 『제주농어촌의 지역개발』, 서울대학교출판부

조맹수

- 1995 『한국은 조국 일본은 모국』, 높은오름

〈Key concepts〉: Jeju Residents Society in Japan, Jeju,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Smuggling

##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Jeju Residents Society in Japan and Jeju Village: 1930-2000

Chang-Min Kim

This study aims to analysis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Jeju residents society in Japan and Jeju village. For this aim, I have done anthropological field research in Jeju village and Jeju resident society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Jeju resident society in Japan and Jeju village has been changed in accordance with socio-economic conditions of Jeju villagers and Jeju residents in Japan.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hen both Jeju islanders and residents in Japan had hard time economically, the relationship was most amicable. After Liberation when the economy of the residents in Japan were prosperous and that of Jeju villagers were bad, the relationship was patron-client relationship. But after 1980, the economy of Jeju villagers was boom up, the relationship became alienated and personalized. Now, the Jeju residents in Japan feel mistreated from Jeju villagers and show a tendency to break off the relationship.